

전 가 동 향

무역협회, 증전기기 4분기 수출 호조 전망

증전기기 분야를 포함한 수출기업의 체감경기가 3/4분기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한국무역협회가 921개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4/4분기 수출산업경기지수(E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EBSI가 119.8로 집계돼 수출경기가 전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8개 품목 가운데 △ 직물 81.3% △ 섬유제품 74.2% △ 수송기계 87.2%를 제외한 25개 품목이 전분기보다 수출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 산업용전자 166.7% △ 증전기기 160.0% △ 가용전자 146.7% △ 정밀기계 145.0% 등은 전망이 매우 밝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42.2%는 현재 수출국면이 상승국면이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바닥국면 응답은 22.4%, 하강국면은 32.8%로 나타났다.

그러나 15개 주요 수출 품목의 채산성 지수는 70.7로 최저치를 기록, 수출 체감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등으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압 난연성케이블 인정방법 대폭 강화

저압 난연성 케이블에 대한 인정방법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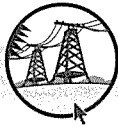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전선을 수평과 60도 경사를 두고 화염을 가했을 때 30초 이내로 연소해야 난연성 케이블로 인정하던 것을 수평·경사·수직 시험 등 3가지를 통과해야 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저압난연성 케이블 인정방법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압난연성 케이블 관련 공사계획 신고부터는 수평·경사·수직 등의 3가지 난연성 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도 저압난연성 케이블 제조·판매시에는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시험을 받거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 자체 시험을 거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현재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룡전선, 두원전선을 비롯해 18개 업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저압난연성 케이블은 수평·경사 시험만을 통과하면 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부분의 난연성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 안에 설치되는 전선밀도가 높아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수직시공이 많아 난연성을 한층 강화해야 되는 수직 난연시험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가 동 향

현대중, 신제품 발표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저압 유도전동기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산업용 유도전동기(3HP-250HP)로 국내외 시장에서 해외 선진 메이커와 경쟁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품질·디자인 등이 획기적이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현대중공업 신제품 개발실은 2년간에 걸쳐 해외연구소 및 테크노디자인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 제품보다 고효율 저소음 저진동 제품으로 성능이 뛰어나며 특히 디자인에도 신경써 외관을 크게 개선했다.

현대측은 11월부터 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해외영업망을 확충하여 10년 연속 해외 수출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수출 증대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시장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제품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했으며, 구입 후 6개월이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에서는 이 제품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 ‘SIEF 2002 전기기기전’에 전시했다.

전선업체 대변신 시작

공공 얼어붙은 전선업계에 일부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폭을 확대하고 해외투자법인 철수, M&A, 생산공장·본사 이전 등에 변신이 시도되고 있어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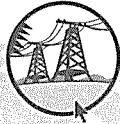
그 중심에 전선업계 양대산맥인 LG전선과 대한전선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임원급 등의 감원과 사업구조조정 폭을 확대해 온 대한전선은 요즘에도 변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어 그 꼬리가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중 대표적인 변화는 설원량 회장이 경영일선에 적극

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CEO역을 맡았던 유채준 사장이 퇴임한 후 설 회장이 사업전면에 나서기 시작, 전선기계 주력이었던 옛 대한제작소를 광섬유 전문회사로 돌려 읍토매직으로 사명을 바꾼데다 시흥공장 설비를 경안전선과 M&A(대한3, 창투3, 경안4)를 통해 발안에 건평 9000평 규모의 KTC라는 합작품을 연출시켰다.

또 중국에 투자한 현지공장 두 곳 중 베이징공장은 작년에 이미 철수를 한데다 칭하이 공장도 철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가 동 향

올해 들어 무조리조트 인수로 레저사업에 발을 들여 놓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며, 이밖에 앞으로 내핍경영을 위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사장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설 회장의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선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그룹 방침에 따라 구대회 구평회 구두회 창업고문 일가계열로 포함돼 여의도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LG전선은 내년 4월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삼성동 무역센터의 아셈타워로 이사, 사옥이전과 함께 사실상 계열분리에 들어간다.

LG전선은 또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연간 8000톤 규모의 에나멜 와이어 창

다오 공장을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원전선은 최근 오산 병점공장을 매각하고 충남 합덕에 제일모직으로부터 3만4000평 규모의 공장부지와 건물 등 5000평을 매입, 모든 생산설비를 이전한다. 대원전선은 우선 기존 제일모직이 쓰던 공장과 이미 토목공사에 들어간 3000평 규모의 신규공장을 포함해 8000평 규모의 생산설비 공장을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전력선 및 광케이블 설비 이전을 끝낼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들어 모보 아이피씨가 롯데 전문회사인 선진금속을 인수한 것과 최근 현대계열 고려산업개발이 전선사업 매각작업에 들어간 것도 업계 관심사다.

전선 생산성 크게 감소

올해들어 전력·통신망 수요 감소로 전선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케이블을 비롯한 동(銅)통신케이블 등 통신선 부문은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선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전선생산 실적은 동량기준 66만100톤(2조5,645억원 규모)에 달해 전년 같은기간 68만5000톤(3조468억원 규모)에 비해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분기별로는 올 1분기에 26만7100톤(1조114억원), 2분기에 28만6800톤(9,795억원), 3분기에 10만6000(4,944억원) 규모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분기 실적은 상반기부터 지난해 수주물량 고갈과 관련산업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24만5000톤 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생산량을 나타냈다.

올 3분기까지 품목별 실적에서는 나동선 7만300톤, 고

무절연전선 1만7600톤, 수송용전선 2만4400톤, 전력용전선 1만8200톤, 통신용전선 4700톤, 알루미늄전선 2600톤, 마그네트와이어 1만1900톤, 롯데 5만6100톤 규모를 생산해 전품목에서 작년 수준을 밑돌았다.

또 광케이블은 올해들어 수출·내수물량이 급격히 줄어 금액기준으로 1,193억원어치를 생산해 전년 같은기간 3,029억원어치에 비해 무려 61%나 생산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같은 전선 생산량 감소에 대해 “올해들어 한전을 비롯 KT 등 주요 수요처의 발주물량과 시판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전력·통신선 수출물량까지도 감소사태를 빚은게 원인”이라며 “그 가운데 수출부진 등에 의한 광케이블의 급격한 생산감소는 업계의 생산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 가 동 향

한전, '미안마 전력망 진단사업' 완료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이 최근 발전분야에 이어 송변전 분야 해외사업인 '미안마 전력망 진단 및 개발 조사 용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전은 미안마 전력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과 장단기 개선대책을 제시한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미안마 전력시장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을뿐 아니라, 국내 증전기업체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1

년동안 미안마에서 △ 기존 전력망실태 진단 및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 △ 신규 전력망 확충계획 수립 △ 전력망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이전 △ 기술자 초청 연수 등으로 진행했다.

미안마는 한국과 비교해 인구는 비슷하지만 면적은 7배가 넘는다. 그러나 발전설비는 116만 6천Kw로 한국의 5670만Kw에 비해 2%정도에 그치고 있고, 송배전손실율도 한국은 4.5%인데 반해 미안마는 35.19%로 대단히 낙후된 전력설비를 갖추고 있어 무한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2002 전사 품질개선팀 경진대회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용오)은 지난달 29일 본사 1층 세미나실에서 '2002년도 전사 품질개선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당진발전본부의 그린팀을 비롯해 총 9개 팀이 참가, 그간의 연구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대회 최우수상에는 '가스터빈 고온열전대 구조개선 국산화로 외화 절감 및 발전정지예방'이란 주제를 발표한 울산발전본부

아톰 I 팀이 선정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직원이 품질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품질개선을 통한 발전설비의 안정운영 및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사내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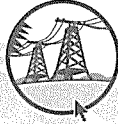
한전 중부지점, "배전설비 고장나도 정전 없어요"

한전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점(지점장 이효성)의 저압 스팟 네트워크 배전시스템이 준공됐다.

중부지점은 최근 저압스팟 네트워크 배전시스템 구축

을 완료하고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저압 스팟 네트워크 배전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기념하고 후속 사업의 이해 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 가 동 향

이날 준공식에는 박순용 영업본부장과 건설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순용 영업본부장은 “시스템 완공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사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효성 지점장은 사업배경과 준공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고신뢰·신배전 방식인 저압 스팟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저압 스팟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특정지역의 전력을 다중 전원을 이용한 수전용 변압기로 상시 병렬 운전해 공급함으로써 배전설비의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정전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배전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관련 기기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전, 공정공시제도 시행, 정보 불균형 방지

한전은 지난 1일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공시제이란 상장법인과 그 임직원들이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등을 특정인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전에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시해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사업 추진 등을 사외로 제공할 경우 반

드시 공시업무 총괄부서인 재무관리처 회계주식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서울 삼성동 본사 회의실에서 각 처실 주무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공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공시제도의 개념 및 도입 목적과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의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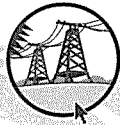
과기부, KT마크 예정기술 공고

과기기술부는 LG산전(주)의 ‘에폭시 하우징과 일체형 가동자를 이용한 아크 소호기술’ 등 55개 기술을 2002년 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로 7일 공고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20일 동안 예정기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뒤 내달 3일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55개 KT예정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 전자분야가 1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분야 16건, 화학·생명분야 9건, 건설·환경분야 7건, 소프트웨어분야 5건, 소재분야 1건 순이었다.

전기전자분야 예정기술은 △ LG산전의 ‘에폭시 하우징



전 가 동 향

과 일체형 가동자를 이용한 아크 소호기술' △ (주)한창트랜스의 '특고압 On-Load Loop 절체기능을 내재한 배전용 지상설치형 변압기' △ 에스케이라이팅(주)의 '복합재료에 의한 반사율 증가와 등기구 효율증대를 위한 저회

도 고효율 형광등기구 개발기술' △ (주)인텍전기전자의 'DC Blowout 코일을 적용한 소전류 차단이 가능한 DC 차단기 기술' △ (주)카오스의 '원격 자동검침을 위한 울트라 스위칭 기술과 TSMA 기술' 등이다.

“아프간 복구, 국내기업 참여”

작년 9·11 미 테러사태로 촉발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전망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의 중앙아시아 3개국과 독일 방문기간 중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사파예프 제1차관과 만나 '한·우즈베키스탄간 아프간 경제재건사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정은 특히 양국 정부간 상호협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아프간 건설사업의 약 80%를 수행한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인력과 우리나라의 플랜트 건설 기술이 결합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기통신, 발전소 건설, 도로, 석유화학 분야 등에 100억원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 아프간의 대규모 인프라 복구사업에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공조체제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이번 약정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국제 금융기구와도 공동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 일리한발전소 준공

한국전력(KEPCO, 대표 강동석)이 알리한 발전소 준공식과 함께 해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전은 14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 남방 100km에 위치한 바탕가스(Batangas)시 일리한 발전소 현장에서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 페레스(vincent S. Peres) 에너지부 장관 등 필리핀 정부인사, 강동석 한전 사장, 킬랄라(Rolland S. Quilala) 필리핀전력공사 사장 및 미쓰비시, 미란트, 구주전력 등 공동사업주 대

표, 그리고 공사 참여업체 대표와 알리한 지역주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알리한 발전소는 필리핀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총 투자규모 7억1000만달러의 민자발전사업으로 한전이 지난 96년 12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지의 에너지 관련업체들과의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다. 99년 3월 건설공사를 착수, 약 38개월만인 지난 6월에 상업운전을



전 가 등 향

개시하였다. 총 전력 생산량은 120만kW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98년 성능복구공사 후 운영중인 65만kW급 말라야 화력발전소와 알려진 발전소까지 총 185만kW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게 되어 필리핀 전체 전력 설비용량의 14%를 차지하는 대규모 민자발전사업자(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한전은 필리핀 정부와 '건설·운영후 양도(BOT

: Build, Operate · Transfer) 방식으로 건설을 추진, 앞으로 20년간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한전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20년 동안 연료 및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판매전력량 및 판매가격 계약을 통해 투자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한전은 사업기간 중 총 전력판매 수입이 약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제품 구매기관 확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등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이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공공기관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0억원 또는 구매예산 500억원 이상인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및 지방공기업 등 20개 기관이 추가됐다.

매년 공공기관이 당해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은 1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이 정부투자기관들의 실행예산이 확정되는 2월말까지 계획과 실적을 같이 제출토록 변경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여성기업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선정 및 발주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공공기관에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구매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중소기업청 도는 광역자치단체에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자금의 통합에 따라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 운용 관련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자원부 국장을 추가했다.

산자부는 12월 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받아 보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기로 했다.